

“구민복리와 남구 발전 위해 최선 다해야”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이 강 영
남구의회 의장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남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28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 복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세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3일간 진행 될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구정을 최종점검하는 기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살피시되 올바른 대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진정성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출은 물론 정책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를 늘 강조해 왔으나 1년을 돌아보니 집행부와 의회 간 불협화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복리와 남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은 여야 구분 없는 의회의 대표로서 의원 모두의 뜻을 모으고, 구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집행부에서 보여준 일련의 태도와 자세는 서로 간에 힘들게 쌓아왔던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7 대 7 여야동수인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의견을 달리한다 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과

반목이 쌓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해관계를 떠나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협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민생이란 말이 송곳처럼 아프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성숙한 역할이 더욱 절실합니다. 제8대 남구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치열한 노력을 주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짙은 땅도 마르면 더 단단해 지듯이 지금의 갈등은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남구의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역동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끝을 잘 맺는 것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해주시고,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과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28만 구민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앞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201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1일부터 열고 있다.

내달 13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쳐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전등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현장방문을 병행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별 중점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운영위원회
 - 명절맞이 의원 현장방문지 다 양화 방안 강구
 - 의회소식지 발행 방안 강구
- 총무위원회
 -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부분 누수문제 신속 해결
 - 다수 주민 이용시설물 안전관리요원 교육 부실
 - 행사나 시설물 유지관리시 장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1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회기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구정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2019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애인, 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정책 지속 추진
-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법 개선으로 체납징수를 제고
- 납구도서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만전
- 주민복지도시위원회
 - 복지관 민간위탁 등 관리감독 미흡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공사장 관리감독 미흡
 -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 대응 부족
 - 도시공원 내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 소홀
 - 마을건강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부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13일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펼쳤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정치, 백운포체육공원 실내빙상장,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운영 현황 및 예산사항 등을 듣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드래곤밸리 엔지니어링 특화구역,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우암동 소마마을 새마을을 사업지를 방문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백운포체육공원 실내빙상장을 찾은 총무위원회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방문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2019년 명사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 참여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앞 열 수동휠체어 탑승자)은 지난 11월 6일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한 ‘2019년 명사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참가하여 수동휠체어를 타고 남구지역 내 편의시설, 보행도로를 직접 이동하면서 교통신호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건 우 의원
(용호2·3·4동)

남구는 총 인구 275,792명 중 65세 이상인 51,443명으로 2019년 10월 기준 노인비율이 18.65%입니다. 남구청 노인복지팀은 제도하에 놓인 곳만 관리하기에도 힘든 실정으로, 각 동에 노인복지관을 두어 현실적으로 그 동에 맞는 방법으로 어르신들 케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율 0.98%라는 극악의 사태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노인층에 대한 시급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구를 다닐 때 만는 각종 민원 중에서 노인 일자리문제에 항상 1, 2위를 다퉈왔습니다. 그 분들의 하소연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일하고, 나는 썰매지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구의 대책

“왜 필요 없는 곳에 나랏돈을 쓰냐?”입니다. 그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정말 살림이 어려워하시는 말씀이었으며, 두번째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포대의 집단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시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국가에서 챙겨야하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연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자살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세계경제 10위권 전후의 선진국인 우리나라이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부모님과의 단절을 더욱 부채질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뿐 만 아니라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복지지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5년전부터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사실상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인일자리정책은 대다수의 서민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 일자리정책은 임금 지급 형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난 뒤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연계해서 쓸 수 있을까? 라는 대제방안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때 줄거울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정에서는 일자리 제공에만 급급한 사업에 그치지 말고, 관내 학이나 요양보호사 협회 등 여러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들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노인복지관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박 미 순 의원
(용호1동)

부산 남구 용호동에 운행 될 트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라졌던 무가선 노면전차인 트램은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남구에 선정됐으며, 1단계 사업 총길이는 1.9km이며, 지하철도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5개의 정류장이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는 489억원이며, 1년 운영비 48억 중 인건비가 37억원인 사업입니다. 남구에 설치되는 트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실증사업이며, 실증사업이란 실적을 쌓기 위한 테스트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트램 도입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말

트램... 알아보기(교통편)

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호동 거주 인구는 9만을 넘기고 있어 출, 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호로(경성대~성모병원)의 경우 2017년 부산시 차량통행속도 조사에서 출근시간기준 소통수준은 “E”등급, 용호사거리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두 곳은 최하등급인 “F”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통체증이 극심한 용호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유치한 트램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이유가기도 했습니다.

도로면에 레일을 깔아 주행하는 트램이 다니기 위해서는 왕복 2개 차선과 정류장1개 차선 최소 3개 전용차선이 필요 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와 메트로 대로 중앙분리대 화단이 철거되며,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교통방송까지의 도로는 트램, 보행전용 구간으로 지정되어 일반 승용차, 택시, 버스는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용호 2,3,4동 거주 주민들은 트램 설치 후에는 짧은 구간

임에도 버스를 타고 이기대 입구나 면허시험장 등지에서 트램으로 환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등 출,퇴근시 불편이 예상됩니다. 용호1동 경우에도 메트로 대로의 차선 2개가 없어지고 경성대와 교통방송구간의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출, 퇴근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남구에 설치 되는 트램은 일반 차들과 함께 다니는 혼용선이 아닌 트램 전용선이며 생활과 밀접한 버스노선 조정, 주,정차 문제, 교통체증 유발 등 풀어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사업입니다.

트램의 실제 교통수요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전환이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전환수요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트램 설치시 경성대 방면 버스노선이 없어질 경우 우회노선이 될 메가마트 49호 광장과 UN로터리 방면의 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점들을 부산시에만 맡기지 말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남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변 준 의원
(용호1동)

다가오는 2020년은 무가선 저장트램 오륙도선 1차 구간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준비해 오던 대전, 수원, 성남 등 경쟁 도시를 제치고 단기간의 준비 끝에 우리 부산 남구가 국내 최초 트램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램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남구 주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램을 유치하기 위해 그 짧은 기간에 무려 5만명 가까운 주민서명을 통해 그 열망을 보여 주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그 열망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게 도입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열망과 참여로 이루어낸 트램은

변화는 기회를 만든다

“세계최초 무가선 저장트램”으로 위로 전기선이 없이 배터리로만 움직이며, 바닥과 같은 높이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바로 승, 하차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남구 주민들이 견학을 통해 확인하고 도입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속에도 “트램 사업이 중단됐다”는 등 자칫 주민들에게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은 이야기들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지하철을 대체하기 위해 값싼 트램을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가선 저장트램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담기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은 예산과 공사 기간을 요하는 지하철에 비해, 트램을 단순히 값이 싸서 대체되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양극화 있었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용호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철도 도입’의 시기를 최소 9년 정도 앞당긴 효과자원이 바로 오륙도선 트램일 것입니다.

또 트램 운행구간에 현행 12개의 버스노선의 축소나 조정이 예상된다. 주창도 주민들의 도시철도의 열망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륙도선 트램 실증사업 기간 중에는 버스노선 조정 없이 있습니다. 오륙도까지 전 구간이 개통된 후에 버스 노선의 조정이나 축소는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들 우려하시는 도로정체도 자연히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기회도 오기 힘들습니다. “세계최초 무가선 저장트램”의 실증 노선 유치는 분명 우리 남구의 위상을 알리고,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정책과 환경, 그리고 관광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오륙도 트램, 백운포 체육센터 2관 건립, 해림플라스타 착공,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현동과 용호동에 노인복지관 건립 등 남구가 변화하는 기회를 28만 남구주민과 남구청,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백 석 민 의원
(문현1·2·3·4동)

현재 부산시는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원도심을 재생하는 동시에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화하는 부산도심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서고가도로는 이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철거 검토대상이나, 1980년 6월에 개통된 문현고가 차도는 우리 남구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단절, 원도심의 쇠퇴, 상권의 몰락 등 대표적인 혐오공간의 원형수탈’로 인식되어 버렸 습니다. 당초 설치 목적은 부산 동·서 축 연결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외곽 국도와 동구, 중구 등 부산 원도심과의 물류 수송 접근성을 향상시켜 중화권 공업 육성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었으나, 40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에는 당초 경제 효율성 보다는 도시미관 저해와 인근지역 슬럼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9년 동구 범일동에 건설된 부산 최초의 고가도로인 자성고가도로 일명 오버브릿지가 철거되고, 해운대 과선교도 동해남부선으로 이전됨으로 철거가 완료 되어 인근 재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활발하게 해결책을 찾아 부산대개조를 추진 중에 있을 때 우리 남구지역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습니다.

첫째, 문현 고가차도 설치 목적 당시의 기능과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철거 타당성용역 조사」를 우리 남구가 조속히 실시하여 부산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문현고가 차도에 대한 교통량과 교통 흐름조사를 과거와 비교하는 정확한 용역을 부산시에서는 실시하여 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는 항만 물동량이 부산신항으로 이전되었고, 복합재개발 등으로 주변 교통 여건이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여 사전 환경조사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남구는 문현고가 도로와 동서고가도로를 조속히 철거할 것을 부산시에 건의하시고, 또한 이에 병행하여 문현고가 차도와 동서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ITF 팀」을 만들어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청장님께 정중히 건의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 중심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현 교차로 바로 옆 문현금융단지는 이기대, 오륙도 등과 더불어 사시사철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인데, 문현교차로 인근 지역은 고가도로의 개대 구조물로 슬럼화되어 상권은 ‘죽은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주민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시대의 산물인 고가 차도 철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